

社 說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전력산업 시장 넓어진다

전력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소위 전통산업의 대표주자 격인 전력산업에서 디지털은 물에 맞지 않은 옷과 같았다. 산업전반에서 디지털 물결이 넘칠 때 전력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디지털화가 힘들 것이라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전력산업도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공급' 위주에서 '분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전력산업은 방향이 일정했다. 전기를 만들어 보내주면 고객이 소비하는 단방향 패턴이었다. 기술의 발전은 단방향성을 양방향 패턴으로 바꿔 놓았다. 공급과 소비과정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전력산업에도 벤처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소비자 위주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산업구조도 공급자 편이 아닌 소비자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 중

심으로 옮겨 간 것이다. 이런 산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전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 분야는 '메이저에서 마이너'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산업계의 분위기를 보면 전력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전력산업계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니겠지' 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느낌이다. 전력산업이 디지털시대로 전환한다고 해서 발전소, 송? 변? 배전 설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동안 주류산업이었다면 서비스를 위한 보조사업 정도로 역할이 바뀔 수 있다. 전통산업 강자의 몰락이 아닌, 전통산업을 발판으로 도약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동지를 틀어야 한다.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율해를 시작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경주가 시작되고, 가속도가 붙는다면 현재 전력산업을 대표하는 간판 기업들도 전혀 새로운 기업에 자리를 내줄 수 있다.

이번에는 코드인사 없다

더디게 진행되던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해외 공공기관의 인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코드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투쟁이 열린 외교부의 해외공공기관장 인사가 논란을 낳았다. 당장 야당과 보수언론은 문제인 정부가 대사 29명, 총영사 10명 등 총 39명의 재외 공공기관장 발표했는데 해당 지역·국가·언어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라고 포장했지만 기가 찰 정도라고 혹평했다. 사실 일부 인사를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우려들이 더 증폭될 것인지, 아니면 찾잔 속의 태풍처럼 사라질 것인지는 추후에 진행될 인사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공공기업도 인사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별

잡음은 없다. 예상했던 인물이 5배수 안에 들거나, 임명됐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인사와 관련한 소문을 한꺼번에 없애기엔 예전의 구태가 여전히 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유력 정치인의 이름이 여김없이 거론되고, 공공기업 사장 후보 중에는 유력 정치인이 뒤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인사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현 정부의 인사기조가 공허한 메아리였는지는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 인사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코드인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다. 정권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을 코드인사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성은 겸비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산책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강력한 8.2 부동산 정책을 펼치며 집값과의 전쟁을 벌였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게 주목적이었다. 정책의 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사이의 간극이 점차 벌어지면서 부(富)가 부를 불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지

저가주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월 4.2배에서 점차 오름세를 보이다 8월 4.5배를 찍은 뒤 등락을 달리했지만 12월 다시 4.5배로 마무리했다. 지난 2014년 상반기 3.9를 유지하다가 8월 4.0을 넘어선 뒤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일 오름세를 이어갔다. 실제로 저가와 고가주택 가격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에서 12월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이 2억8115만원에서 3억26만원으로 오르는 동안, 5분위 평균가격은 11억8035만원에

서울 집값 양극화 '심화' 대책 필요할 때

난해 말 역대 최고조에 달했다. 작년 한해 저가주택이 1900여만원 오르는 동안 고가주택은 1억6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4.5배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이란 전체 아파트가격을 가격 순으로 5등분한 뒤 상위 20% 평균가격(5분위)과 하위 20% 평균가격(1분위)을 나눈 값이다. 고가주택이 저가주택보다 몇 배 차이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배율이 높을수록 고가주택과

서 13억4318만원 올랐다. 즉 지난 한 해 서울에서 저가아파트가 약 1911만원 오르는 동안 고가아파트는 1억6283만원 오른 셈이다. 연이은 규제책에도 서울 평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실상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커지는 모양새다. 이처럼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어, 서울 내에서도 서민과 중산층 사이 주거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승교 기자 kimsk@

월요객석



정만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완만한 성장과 개도국에서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도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법인세 감소를 기업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미국이 연 2%대의 건조한 성장세로 세계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권과 일본도 고용 여건의 개선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건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2기 첫해를 맞는 중국은 연 6%대 중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부채 리스크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안정적인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원유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OPEC 산유국들의 감산 재연장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평균 배럴당 50달러대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하락이 예상된다.

2018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공장 가동 및 기존 설비 증설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도체 합입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3%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나, 전년도에 비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3%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나, 전년도에 비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3%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나, 전년도에 비해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3%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산업 기상도와 시사점

가 예상된다.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은 IT경기 개선과 신중국국의 수입 수요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약 4%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공급자 주도형 시장 구조하에서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총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은 자국의 독자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우리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의 경우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주력 업종은 대중국 수출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드 리스크 해소로 의료, 식품 등 소비재 중심의 대중 수출 부진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중국 중대기업의 국내 정보통신기기, 의료기기, 의류업체의 생산기지 부상에 따른 현지생산 증가로 국산 섬유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미국 시장은 PC와 스마트폰 등 전자수요산업의 수요 증가, 우리 식품의 인지도 제고 등으로 호조가 예상된다. 내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부상하고 있는 IT 신기술의 수요가 늘면서 IT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철강은 조선용 중후판 수요 부진,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 철강수요 부진,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건설용 수요 둔화 등의 요인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이 기대되며 우리 주력산업의 생산은 조선, 철강 등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공장 가동 및 기존 설비 증설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반도체 가전제품 주력산업 생산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주도 산업의 핵심부품으로서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가전 산업도 프리미엄 인공기능 가전시장 형성 및 국

내 가전 대기업의 핵심기술 경쟁우위 확보로 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조선은 수주잔액의 현실화로 건조량이 크게 줄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시사점을 모색해 본다. 첫째, 국내 성장을 견인할 내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수출의 경우 세계 경기 호조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는 건설투자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 산업에 있어서 기존 경쟁력 저하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고부가 및 유망 신산업 부문으로의 충분한 투자 확대 유인이 이뤄지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통상 규제 움직임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 정부와의 통상 외교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주력산업 분야에서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생산 기반 약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천 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기업들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기술개발 및 투자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Advertisement for P.V.C. cable trays. Title: '가격 경쟁력! 시공 편의성! 총체적 원가절감 효과!' (Price competitiveness! Construction convenience! Overall cost reduction effect!). Features: '철재 트레이의 장·단점을 뛰어넘는 P.V.C.' (Overcoming the pros and cons of metal trays with P.V.C.). Product types: '고강도 케이블 트레이!' (High-strength cable tray!). Claim: '이제는 많은 업체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Now many companies are choosing it.). Includes images of various tray types and a list of client companies like EMK, M&S, and others.

Footer information for '전기신문' (Electimes.com). Includes contact details for the editorial office, advertising rate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Website: www.electimes.com. Phone: 02-2168-1300. Fax: 02-2168-1349.